

# 2000년대 한국 리얼리즘을 그린다

과거 거슬러 오르는 기법 참신  
설경구·문소리의 열연도 빛나

2000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였는가, 21세기의 시작이었는가. 그런 즈음의 혼돈이든, 또 다른 희망이든, 2000년 1월 1일의 해는 평소처럼 떠올랐다. 바로 그날, 한 편의 영화가 각 세기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훌쩍 내리듯 관객을 만났다. 소설가 출신 이창동 감독이 1997년 '초록물고기'에 이어 두 번째 연출한 작품 '박하사탕'이다.

영화 '박하사탕'은 40대 중년의 나이에 막 들어선 김영호의 이야기. '야유회, 1999년 봄'으로부터 시작해 '소풍, 1979년 가을'로 막을 내리는 영화는 김영호의 20년 세월을 모두 7개의 단편에

피소드를 과거로 거슬러 오르는 방식으로 펼쳐냈다.

산업화의 상징으로 불린 서울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스무살 청년 김영호는 진압군으로서 1980년 광주의 5월을 목격한다. 오인 사격으로 여고생의 목숨을 앗은 뒤 총상을 입은 그는 이후 삶의 중요한 상처로, 수많은 이들의 그것처럼, 5월을 기억해야 한다. 운동권 학생의 곁에 질린 풍의 흔적을 이제 경첩이 된 자신의 손에 묻히는 것이야말로 비극의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학생은 "삶은 아름답다"고 했다. 하지만 서서히 속물의 본성을 드러내고야 마는 김영호가 보기에 세상과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때마다 괴롭히는 총상의 아픔은 새록새록 삶과 세상을 향한 자학의 정도를 더해갈 수밖에.



박하사탕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여자. 김영호의 순박했던 스무살 시절 감정을 나뉘던 순임이다. 박하사탕 포장 일을 했던 순임은 더없이 순수하게 맑았다. 그는 그악스런 세상을 여전히 견뎌내리며 김영호에게 박하사탕을 건네곤 했다.

김영호 아니 그 토레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어내고 버텨내고 살아내야 했던 질곡과도 같은 20년의 세월. 순수하고

맑았던 심성을 애써 외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들의 세월은 박하사탕의 특 쓰는 첫맛처럼 묻어 두었던 상처를 후벼 판다. 달고 단 뒷맛은 결코 오래도록 남지 않아서 김영호는 철로 위에 올라 절규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한 줄기 흐르는 눈물. 회한 가득한 방울은 지독하게도 깊었던 자학의 늪에서 김영호를 구해내 순수하고 맑았던 시절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

김영호를 연기한 설경구와 순임 역의 문소리는 바로 그 순수하고 맑았던 시절로써 관객의 가슴에 가 닿았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뛰어난 연출과 신선한 이야기 구성은 2000년대 한국 리얼리즘의 효시를 이루는 힘이 되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해시태그 킷



### 택시도 수호, 잘생김 폭발

그야말로 '여심 도둑'이다. 그룹 엑소의 수호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호는 9일 SNS에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홍보대사로 임명해주시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홍보대사 위촉패를 꺼안은 표정에 기쁨이 넘쳐난다. 정갈하게 넘긴 헤어스타일도 깔끔한 택시도와 잘 어울린다. 팬들은 "이게 바로 '상견례 프리패스' 아닐까" "잘생김이 폭발했다" 등 반색했다.

#스포츠동아 #엑소 #수호 #여심도둑

### 한·일 악화 끄떡없는 동방신기 싸인日 리메이크 OST 부른다

그룹 동방신기가 한국드라마 '싸인'의 일본 리메이크작 주제가를 부른다.

동방신기는 일본 지상파채널 아사히TV가 11일부터 방송하는 드라마 '싸인'의 주제가 '미러(mirrors)'를 선보인다. 31일 발표하는 일본 싱글 수록곡인 노래를 드라마를 통해 첫 공개한다.

동방신기의 일본드라마 OST 참여는 처음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등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일본의 경제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이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일본인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방신기가 일본드라마, 특히 한국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리메이크작의 주제가를 부른다는 건 이들의 스타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사히TV 측은 "동방신기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더욱 절정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해 제언했다"며 "노랫말도 드라마의 긴박한 분위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9일 "한국드라마 리메이크작에 한국가수 OST 조합이 흔치 않지만, 현재 상황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깊다"며 "한류콘텐츠에 대한 현지 관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정마담의 파격 증언 양현석 의혹 새국면

정마담 "양현석이 여성 동원 요청"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의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일명 '정마담'의 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양현석의 주장과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정마담'은 양현석이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고급음식점과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접대 자리에 유혹업소 여성을 동원한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8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술자리에 유혹업소 여성들이 나타난 건 모두 양현석의 요청 때문"이라며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 2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날 방송에서 양현석이 연루된 유럽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2014년 10월 유혹업소 여성 10여 명과 함께 (말레이시아 제력가)조로우의 요트에서 6박 7일을 잤다. 밤에 술 마시고 파티를 즐겼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여성 한 명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10일을 갖지만 그 중 빨간 날(공휴일)이 섞여 있어 일하는 날은 5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여성들이 조로우와 그 일행들의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낸 것에 "내가 시킨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마담'은 당시 자신이 받은 돈과 관련해 유럽 출장 준비 도중 양현석의 친구이자 미술업체 종사자인 A씨와 양현석의 측근인 YG의 김모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갈 때 양현석이 돈을, 그러니까 양현석 친구(A씨)가 '조로우' 쪽에서 줬다"며 "저한테 돈을 전달해줬다"며 유혹업소 여성들의 출장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유로 다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5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스트레이트' 제작진에게 "(식사 자리에)지인의 초대로 동석했으며 식사비도 내가 내지 않았다"며 "'정마담'과는 아는 사이이지만 여성들이 왜 참석했는지는 모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양현석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6월 '정마담'과 유혹업소 관계자 10여 명은 물론 양현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8일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마담'의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은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음악 천재' 슈가, 동료 가수가 먼저 찾는 히트메이커

(방탄소년단)

피쳐링·작사·작곡·프로듀싱 등 다방면 재능  
이소라·에픽하이 등과 공동 작업 '대박 행진'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민윤기)가 '히트메이커'임을 또 다시 입증하고 있다. 슈가가 방탄소년단의 곡뿐 아니라 동료 가수들의 앨범 작업에 잇따라 참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낳아 시선을 끈다. 방탄소년단은 다른 그룹과 달리 솔로 등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팀으로 유명하지만, 슈가는 피쳐링,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 다방면에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슈가는 최근 가수 헤이즈가 발표한 신곡 '위 돈트 토크 투게더'(We don't talk together)의 프로듀싱을 맡았다. 헤이즈와 공동으로 작사, 작곡했다. 7일 오후 음원이 공개된 직후 9일 현재까지 각종 음원차트에서 1~3위에 올랐다. 스웨덴, 핀란드, 태국, 필리핀 등 세계 10개 지역 아이튠즈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헤이즈가 여성 솔로가수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슈가와 함께 음악적 교류를 이루며 만들어낸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가가 프로듀서의 역할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7년 가수 수란의 '오늘 취하면'을 시작으로 에픽하이의 '새벽에' 등 다른 가수들의 곡 작업에도 참여했다. 특히 최근 에픽하이가 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슈가가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에픽하이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리더 타블로가 프로듀서로서 제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권한을 슈가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왔다.

슈가는 1월 가수 이소라의 싱글 '신정곡' 피쳐링도 맡았다. 이소라의 감성적인 음색과 슈가 특유의 부드러운 래핑이 조화를 이룬 곡이다. 당시 '신정곡'은 국내 음원차트를 점령한 것은 물론 공개 직후 미국 아이튠즈 '톱 200 싱글' 차트 4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슈가의 효과' 덕분에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홍콩 등 세계 44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슈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동료 가수들의 앨범 작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동료 가수들의 음반 프로듀서로서 두각을 드러내며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 '응사' 유연석, 이번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신원호 PD 작품 두 번째 출연 이례적

연기자 유연석이 연출자 신원호 PD의 마음을 두 번 사로잡은 유일한 인물로 주목 받고 있다.

유연석은 12월 케이블채널 tvN이 방송하는 신원호 PD의 신작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캐스팅됐다. 이로써 2013년 주연작 '응답하라 1994' 이후 신 PD와 4년 만에 의기투합하게 됐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유연석이 신 PD의 드라마에 출연한 '젊은 연기자' 가운데 두 차례 참여하는 유일한 얼굴이라는 점이다. '응

답하라' 시리즈에 모두 등장한 성동일과 이일화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이 때문에 유연석에 대한 신 PD의 신뢰가 두터운 사실을 엿보게 한다.

방송사에서 신 PD는 호흡을 맞춘 연기자들 가능한 한 다시 기용하지 않기로 소문 나 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그만의 확고한 집념 때문이다.

신 PD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1997년과 1994년, 1988년의 시대상을 소재로 삼았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감옥을 배경으로 재소자들의 사연을 다루는 등 그동안 드라마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과



유연석

설정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이에 따라 출연자들도 연극에서 활동하거나 유망주들을 과감히 기용해 새로운 이야기에 신선함을 더했다.

하지만 유연석은 신 PD 나름의 '철칙'에서 예외인 셈이 됐다. 유연석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 역을 맡아 생명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긴박한 공간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피어나는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앞서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성공과 출세가 목표인 의사를 연기한 바 있어 그 가 펼쳐낼 새로운 모습에도 시선이 쏠린다. 백슬미 기자